

두 달 만의 가족 상봉 “20분 면회 너무 짧아요”

북구 동행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 현장 가보니

백신접종 관계없어 자녀들 방문 해도...양 손엔 음식 보따리 병원 측 “미용봉사·레크리에이션 등 외부프로그램 시작할 것”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직접 모셔야 하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몇 달만에 아버지 손을 잡게 돼 눈물이 나네요”

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2개월여 만에 재개되자 4일 오전 10시에 광주시 북구 신안동 동행요양병원에는 부모를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자녀들의 발길이 계속됐다.

이날 홀로 아버지를 보러 온 양선(여·52)씨는 연신 아버지의 손을 주무르며 “운동은 계속하고 계시냐”, “감기는 걸리지 않았냐” 등의 안부를 물었다.

양씨의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오렌지, 요플레 등이 한아름 들려있었다. 양씨는 면회가 가능한 20여 분 동안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만지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대화 중 아버지는 “(양선 씨) 머리를 잘라 예쁘다”고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광주시가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지에서 대면 면회와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시설마다 부모들을 직접 만나기 위한 자녀들의 예약이 가득 찼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됐으며 면회시간은 20분이었다.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면회실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은 자식들의 손은 무거웠다.

지난 4월 30일부터 ‘코로나19’ 6차 대유행으로 면회가 금지되기 전인 7월 24일까지 대면면회가 허용됐을 때는 백신접종 이력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대면면회에선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더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병원측의 설명이다.

이날 면회실에는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도 있었다. 박모(여·89)씨의 아들·딸과 사위 4명이 모여 꽃과 케익을 준비했다.

딸들은 면회시간 내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머니는 눈을 잘 뜨지 못하다 사위

가 “반갑습니다”라고 말하자, “오서방 반갑네”라고 말해 지켜보던 가족들은 깜짝 놀라 눈물을 글썽였다.

짧은 면회시간이 끝나자 자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끝까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겼다. 서울에서 온 딸 박혜영(65)씨는 “2개월만에 어머니에게 안겨 마음이 뭉클했다”면서 “면회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또 예약해서 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회객 오은영(51)씨도 서울 마포구에서 어머니를 만나러 이날 병원을 방문했다. 오씨는 면회시간 내내 어머니에게 찹쌀 붙어 건강을 살폈다. 양말은 잘 신었는지, 담요는 따뜻한지, 육창은 없는지 등을 묻는 딸의 모습을 어머니는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오씨는 “지난 여름 대면면회 이후 처음 어머니와 만나 손을 잡았다”면서 “언제 대면면회가 비대면으로 바뀔지 모르니 자주 보러 와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완화조치에는 대면면회 외에도 시설 내에서 외부프로그램 운영도 포함됐다. 다만 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만 고용할 수 있다.

김미혜 동행요양병원 이사는 “대면면회가 시작되면서 예약이 평소보다 2-3배 불리고 있다”면서 “어르신 생신잔치, 미용봉사, 레크리에이션 행사 등 각종 외부프로그램도 이제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홍희 기자 strong@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진 4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요양병원에서 입소자와 가족이 면회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LH, 지스트에 땅 장사?

3만㎡ 부지 ‘묵은 이자’ 61억 등 125억에 매입 요구... 조오섭 의원 “LH, 국책사업 발목 잡아선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 부지매입에 ‘묵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LH, 지스트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지스트는 1991년 지스트 조성 당시 협약을 맺고 연구시설용지 3만1709㎡(전체 대비 약 5%)를 잔여부지에 남겨뒀다.

LH는 현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된 64억원에 20년간 가산이자 61억원을 합해 총 125억원에 잔여부지를 매입할 것을 지스트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협약서에는 공급토지 약 15만평을 제

외한 약 10만평 토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처분하도록 하고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명시했다.

2000년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산업입지법과 관계없이 조성원가를 적용하도록 판시했다.

LH가 지스트에 수년간 매입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나 협약서 제7조에 해약조항을 두었지만 해약이나 재계약 협의를 완성하지 않았고 2007년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별도 약정도 체결한 적이 없다. 따라서 1991년 협약서가 유일한 약정인 상황에 LH가 이자와 가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 ‘역지’라는 지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구나 지스트는 이 잔여부지를 최근 추진중인 차세대 AI광반도체 첨단공정 FAB사업부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2026년까지 446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이번 정부 예산안에 14억원이 반영됐다. 지스트는 또 이 잔여부지에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건립도 계획하고 2023년 설계비 2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를 AI반도체 특화단지로 만드는 데 확실히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LH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구의회,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 조례안 가결

해체 신고·허가 대상 등 규정

광주시 서구의회가 건축물 해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 붕괴사고 등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승일(가 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

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반영한 조례안에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버스 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신호등이 설

치된 횡단보도·육교 지하도 출입구 등의 반경 8m 내에서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 사전 신고로 안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해체 허가 대상 기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교육대전환 위해 힘 모아달라”

김대중 교육감, 전남교육청 정책협의회사 당부

전남교육청이 4일 민선4기 첫 전남교육 정책 협의회를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 22개 시·군 교육장과 12개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현대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는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협의회에서는 주민직선 4기 공약 및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모든 학생의 꿈을 소중하게 키웁니다 ▲마을과 함께 사람을 키웁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신뢰받는 행정으로 교육가족의 공지를 높입니다를 근간으로 하는 45개 과제를 공유했다.

협의회 자리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교육은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이라는 큰 화두를 두고 계승과 발전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연대 속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내년 1월 현역 입영 희망자 모집 시작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년 1월 현역 입영 희망자 모집이 시작된다. 광주전남병무청은 5일 오후 2시부터 12일 오후 2시까지 ‘2023년 1회차 각 군 현역병 모집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육군, 해군, 해병, 공군을 각각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18세(2004년생)이상 28세(1994년생) 이하인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다.

모집분야 관련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전공한 사람이 지원 가능하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모집분야별 선발배정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하고 선발자는 2023년 1월에 입영한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모집 코드119를 운영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모집병 지원과 입영에 관해 궁금하면 언제든지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